

무성서원강수재중수기(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1965_김인기(金麟基) 지음_30.0×78.0cm



1965년 강수재를 중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작성된 기문이다. 당시 군수 신상우(申祥雨)의 지원으로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김덕기(金德基), 김형기(金炯基), 김영기(金榮基) 등이 감독을 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로 무성서원에는 다양한 중수 및 개수 기록이 있는데, 무성서원의 연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기문은 김인기(金麟基)가 작성하였다.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夫尊賢慕德衛道興學守宰之所當先務也本院迺崔孤雲先生以下六賢之妥靈而士林依歸之所創立而賜額三百餘祀而伊間歷代守宰因時相繼隨毀隨補屬明世盛典降自百六斯文大喪主宰無人櫛沐之製莫禁咨嗟之傷幸當陽春之始庶政維新自政府特賜幫助拯急重修猶有未善本倅申侯祥雨下車卽來審院慨然以興起士林篤志損廩而重修講修齋且築涵廊以奠面貌噫申侯賢宰也能繼往宰之前跡而開來守之後軌焉時人之範模其有功於斯者大矣可不善哉是役協贊董督者金德基金炯基金榮基君

乙巳至月下漸道康金麟基記

執綱 權寧玉 本孫 掌議 金涼述

掌議 金東柱 色掌 宋正燮

直月 金在欽 原

直月 金榮得

무성서원강수재중수기[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대저 어진 이를 존중하고 덕(德) 있는 이를 사모하고 도(道)를 지키고 학문을 일으키는 것은 수령(守令)이 마땅히 급선무로 삼아야 할 바이다. 본 서원은 고운 최치원 선생 이하 여섯 선현의 혼령을 편히 모신 곳으로 사림(士林)이 의지하는 곳이다. 세워지고 사액(賜額)을 받은 지 삼백여 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역대 수령(守令)들이 시간이 되면 서로 이어서 훼손된 곳을 수리하여 세상의 성대한 의식을 밝히고 두터이 했다. 재액을 당할 운수로 사문(斯文)이 크게 주재자를 잃었고, 사람들이 머리를 빗고 감는 습관이 없어져 탄식하는 상심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좋은 세상이 열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새로워져 정부로부터 특별히 도움이 받아 급히 중수(重修)할 수 있게 되었어도 오히려 잘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본 고을의 수령으로 신상우(申祥雨)가 부임하시어 서원을 살피고는 개연(慨然)하게 사림을 일으키려 뜻을 돈독히 하고 봉급을 덜어서 강수재(講修齋)를 중수했고, 또 혼랑(潤廊)을 지어 면모를 일신하였다. 애 신후(申侯)는 어진 수령이다. 역대 수령의 앞 자취를 이어서 뒤에 오는 수령의 길을 열어주고, 세상 사람의 모범을 두텁게 하시니, 사문에 그 공이 크시다. 어찌 좋지 아니한개 이 일을 험찬하고 감독한 사람은 김덕기(金德基), 김형기(金炯基), 김영기(金榮基)군들이다.

을사(1965) 동짓달 하순에 도강(道康) 김인기(金麟基)가 짓다.

집강(執綱)	권영옥(權寧玉)
장의(掌議)	김동주(金東柱)
직월(直月)	김재흥(金在欽)
직월(直月)	김영득(金榮得)
본손장의(本孫掌議)	김종술(金宗述)
색장(色掌)	송정섭(宋正燮)